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불멸의 령도업적

오진명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다. 우리 나라는 산과 들에 나무가 울창하고 백화만발하여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워왔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신년사》와 2월 26일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서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시고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후파로 벌거숭이가 된 산들에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푸른 숲이 설레이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이며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도록 하신것이다.

산림복구전투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애국주의는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체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 때 자라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뜻깊은 주체101(2012)년 3월 2일 나무모들을 심고 인민군대의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오늘은 해방직후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통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식수절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식수는 자기가 구덩이를 직접 파고 심어야 식수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나무의 가지가 많은 쪽이 남쪽방향으로 향하게 심어야 하며 흙을 덮을 때에는 흙을 잘 다져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고 나무들을 정히 심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식수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김정일**애국주의이라고 하시며 **김정일**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후 식수절들에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와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며 군인들과 학생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시였다.

주체104(2015)년의 식수절에 오중훈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산천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야 한다고, 산림문제를 놓고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기에 우리 당은 산림복구도 총포성없는 전투로 간주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구름향나무, 은빛종비나무, 수삼나무, 은행나무들을 심으시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이라고, 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과 군인들이 조국의 재부, 후대들의 행복의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자각을 안고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6(2017)년 식수절에도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면서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나무 한그루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꾸는 과정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길수 있다고 하시였다.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시려고 숭고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따라 일군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 자각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양묘장들을 현대화하고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산림조성사업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신것이다.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다. 총포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선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무모생산을 과학화할수 있는 표본, 본모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묘장은 단순히 나무모를 생산하여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

산림복구전투에서 주타격방향이냐 같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종자처리, 싹틔우기, 영양관리, 생태환경보장, 병해충구제, 저장 등에 이르는 모든 나무모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함으로써 양묘장을 적은 생산면적과 로력을 가지고 한해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으로 꾸리도록 하시고 설계로부터 자재보장, 건설력량투입에 이르기까지 양묘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주체105(2016)년 5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관철하였다고,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모든 도들에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면 한해에 수억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도당위원장들을 비롯한 해당 부분의 일군들을 참관시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양묘장을 건설해놓은데 대하여 거듭 되뇌이시며 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인 양묘장의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중앙과 각 도들의 양묘장들도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3(2014)년 11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중앙양묘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사정이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오늘을 내다보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신 나무모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양묘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산림 및 원림조성에 필요한 묘목들을 해마다 많이 생산하였다고 평가하시면서 생산기지를 확장하여 더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며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및 관리방법을 완성할뿐아니라 용재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는 물론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모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에서 들어온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풍토순화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주체104(2015)년의 식수절을 맞으며 20여종에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산림복구전투의 중요전투장들에 보내주었다.

중앙양묘장을 표준으로 하여 각지의 산림경영소 양묘장들에서도 산림복구전투를 년차별계획대로 근기있게 내밀수 있도록 실리있게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워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다고 하시며 전선에 총포탄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보장하도록 하시였다.

황해북도 름산군에서는 해마다 수백정보이상의 면적에 나무를 심어 3~4년동안에 나무심기를 완전히 결속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산림경영소의 양묘장을 훌륭히 꾸리였다.

회양군, 원산시를 비롯한 강원도의 여러 시, 군들과 평안북도 운산군, 동창군, 태천군, 황해북도 연탄군, 신계군들에서도 양묘장꾸리기를 산림복구전투의 선결조건으로 틀어쥐고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수많이 꾸려져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산림복구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을 잘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신것이다.

산림복구는 엄혹한 자연속에서 어린 나무모를 키워 심고 해를 이어가며 가꾸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동원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당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결정서를 채택하게 하시고 산림복구전투지휘부들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선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각급 부대 정치위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하며 군민협동작전을 잘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안의 각급 부대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김정일**애국주의를 군인대중의 심장마다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나무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전투를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주체105(2016)년의 식수절 하루동안에만도 인민군군인들은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세잎소나무, 평양단풍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과일나무들을 수백만 그루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사회의 일군들도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은 사무실에서 맴돌면서 통계수자나 따질것이 아니라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령을 치며 대중을 산림복구전투에로 이끌어야 한다고, 선전선동사업을 잘하여 천만군민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지펴주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 년차별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하여 산림복구사업에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봄철나무심기에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으며 일군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현지들에 달려나갔다.

주체104(2015)년에 평양시산림복구전투지휘부에서는 지대별나무심기면적과 종수를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나무모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천수백정보의 면적에 수백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평안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도, 시, 군들에서도 이룩되었다.

황해북도 연탄군과 평안남도 덕천시의 일군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직접 구멍이를 파고 나무도 심으면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주체104(2015)년의 봄철에만도 전국적으로 1억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기의 고향산천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전후시기에 천리마운동을 벌린것처럼 사회주의애국립운동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림, 소년단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안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강도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주체104(2015)년에 산들에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 남포시 천리마구역, 대안구역, 룡강군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도 단계별 나무심기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세잎소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가까운 앞날에 그 덕을 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황해북도에서는 주체105(2016)년에 나무의 사름률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렸으며 황해남도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평안북도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연구성과를 도입하였으며 평안남도에서도 나무심기에 토양개량 및 수분흡수제를 리용하여 사름률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땀감문제, 병충해와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 등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언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하여온 우리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적대세력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쳐온것처럼 고난의 행군의 후과를 가시고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실마리어 산림, 황금산